

어명소 2차관, “겨울비·습윤성 눈으로 인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

-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도로공사 홍천지사 방문하여 제설대책 현황 점검 및 근로자 격려 -
-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찾아 빠른 일상 복귀 위한 재활서비스 강조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3일(금) 오후 1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를 방문하여 제설대책현황을 점검하고 제설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먼저, 홍천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제설대책 현황을 보고 받은 어차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주말 겨울비가 내리고 기온 하강에 따라 습윤성 눈으로 바뀌어 내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도로에 눈이나 결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도로전광판표지(VMS)를 통해 도로통행 및 교통상황을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이어,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에 도착한 어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장비의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강원지역의 경우 잦은 폭설로 다른 지역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여 폭설 대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 강원권 제설대책 현장 점검을 마친 어 차관은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을 방문하여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 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재활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1조)에 따라 설립·운영(‘14년~)

○ 먼저, 병원시설을 둘러보며 환자와 의료진을 만난 어 차관은 오병모 부원장으로부터 병원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올해로 개원한 지 9년차에 접어들면서, 환자 수가 연간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 아울러 “교통사고 부상자 등에 대한 재활치료 중점병원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병실가동율이 최근 3년간 약 80%를 넘어서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폐쇄하지 않고 정상 운영해온 것에 대하여 모든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격려하였으며,

○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교통재활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3. 1. 13.

국토교통부 대변인